

현대차그룹, 새만금에 9조 투자 미래 신사업 밸류체인 구축 속도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과 '맞손' 기업 입지·정부 비전 좌표 일치 로봇, 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현대자동차그룹이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전북 새만금지역에 로봇·AI-에너지 중심의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관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새만금 프로젝트' 관련 현대차그룹·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2월 정부·전라북도와 맺은 투자협약의 후속 조치다.

이날 장재훈 부회장은 "새만금은 10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트라이포트 교통망, 그리고 70만 명이 유입되는 신도시 인프라 계획을 갖추고 있다"며 "기업이 원하는 입지 조건과 정부의 지역 성장 비전이 같은 좌표 위에 놓여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계획 발표 38일 만에 4곳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하게 되었다"며 "매우 이례적인 속도이며, 이 사업에 대한 민관 공동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은행은 금융구조 자문과 지원을, 기업은행은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 금융 지원을, 수출입은행은 해외 진출과 수출입 금융을, 신용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현대차그룹-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협력 MOU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 위원장, 장 부회장, 장민영 IBK기업은행장,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뉴시스

증기금은 보증 지원을 맡아 사업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지역 혁신성장거점 구축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정보를 협약 기관들과 공유한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지역 112만 4000㎡(약 34만 평) 부지에 약 9조원을 투자해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AI 데이터센터, 1GW급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등 미래 신사업 밸류체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로봇, AI 데이터센터, 수소 에너지 및 AI 수소 시티 등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산학 협력 강화 등으로 유입되는 우수 인재는 서남해안권

전반의 중장기 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첨단 로봇 기술 선도 및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 수소 에너지 생태계의 주도적 구축 등 로봇, AI, 수소 에너지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에도 힘을 실을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지난 2월 새만금 혁신성장거점 구축 협약 체결 이후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프로젝트 관련 세부 사업 검토 및 투자 구조 설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필요한 협의를 이어가며 단계별 추진 방안과 투자 일정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



금융위 소액공모 기준 30억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부담 완화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공모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공시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자금조달 문턱을 낮추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액공모 기준을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한 공시서류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제도로, 기준이 상향되면 더 많은 기업이 복잡한 신고 절차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소액공모 기준은 2009년 이후 유지돼 왔지만, 공모시장 규모 확대와 기업당 자금조달 규모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공모시장 규모와 유상증자 금액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



/허정윤 기자 zelkova@metr

“美 의약품 관세, 단기 영향 제한적 전망”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요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 포함”

미국 정부의 의약품과 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오전 서울에서 미국의 의약품 232조 관세와 관련해 업계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다만 “향후 미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5개 의약품 수출기업과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산업부와 보건복지부가 미국의 의약품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 의약품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2일 의약품 및 원료

(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발표하고, 특히 의약품과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해 일본, EU(유럽연합)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적용하고, 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는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미국의 의약품 관세 조치 발표 이후 정부의 신속의견 수렴을 평가하면 서도,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1년 이후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만큼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업계는 이날 기업별로 영향 평가와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와 지원기관에 대한 대미 의약품 수출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



AMRO, 올해 韓 물가상승률 한 달 만에 0.4%p 상향 제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전년비 2.3% 오를 것으로 예상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

‘올해 지역경제 전망’ 보고서 전년비 2.3% 오를 것으로 예상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

아세안+3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기존의 1.9%에서 0.4%포인트(p) 올렸다.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류·원재료 등의 오름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AMRO는 6일 발표한 ‘2026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불과 1개월 전에 제시한 1.9% 대비 0.4%p 상향 조정된 수치다.

한국은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들 중 하나라는 게 이번 보고서에서도 드러났다.

2026 성장률에 대해선 1.9%를 제시했다. 지난달 10일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할 당시 제시한 수준을 그대로 뒀다.

보고서는 국내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대응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1.9%와 2.2%를 전망했다.

‘지역경제전망’은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다. 한국·중국·일본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자료다.

보고서는 아세안+3 지역의 성장률이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2025년 4.3%에서 2026년 4.0%, 2027년 4.0%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지역별 성장률 전망치는 ▲중국 4.5% ▲홍콩 2.8% ▲일본 0.7% ▲아세안 4.6% 등이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세가 계속된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1900원을 넘기고 있다. /뉴시스

▲중국 0.6% ▲홍콩 1.9% ▲일본 2.4% ▲아세안 3.1%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향후 아시아 경제는 하방 위험이 우세하고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인공지능(AI) 발전 둔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재개 등이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역내 에너지 수급 차질가능성을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환경을 감안해 당국의 유연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향후 경제상황의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가 광범위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통해 재정·통화정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레아만 충격에 대응하는 역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성장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



경험·인프라 중심 ‘장기적 경쟁력’ 초점

» 1면 ‘스타필드·AI 인프라...’서 계속

이번 협력은 미국 정부의 AI 수출 프로그램 첫 사례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소버린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신세계는 부지 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리플렉션AI는 운영 소프트웨어를 담당한다. 정 회장은 “AI 없는 미래 산업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신세계의 미래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세계그룹은 글로벌 AI 기업 OpenAI와 국내 유통사 최초로 AI 커머스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며 ‘AI 퍼스트’ 유통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밝혔다.이마트를 시작으로 그룹 전반에 AI를 확산해 단순 추천을 넘어 검색부터 결제·배송까지 이어지는 ‘AI 쇼핑 에이전트’ 기반의 차세대 커머스 모델을 2027년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다. 연내 이마트 앱에는 고객의 구매 패턴을 학습해 쇼핑 목록을 제안하고 매장 편의 기능까지 지원하는 AI 에이전트가 탑재될 예정이다. 신세계의 유통 데이터·인프라와 OpenAI의 기술력을 결합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초개인화

고객 경험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과거 투자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근 이마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의 미국 자회사 스타필드 프라퍼티는 미국 나파밸리 와이너리 ‘셰이퍼 빈야드’의 영업권 392억원을 지난해 말 전액 손상자산 처리했다. 해당 와이너리는 신세계그룹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겠다는 2022년 3077억원을 들여 인수한 것이다.

2022년 당시 국내와인시장 규모는 1조원을 돌파하며, 와인 고급화와 위스키 등 새로운 주류에 대한 수요 확대로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했던 글로벌 와인시장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거 투자가 ‘확장’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최근 프로젝트는 ‘경험’과 ‘인프라’ 중심으로 보다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본다.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신세계의 기업가치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